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최소의 헛바닥이 설법을 하네

중생불 ③

그러니까 우리가 인자 이만큼 됐으니 이전 솔직한 말로 누리의 진리를 아는 거 아니냐? 누리의 진리 어찌 알았나. 그 거 절대성이라 말하여. 절대성자리 아무 모습도 없더라 말하여. 냄새도 없더라. 그렇구나. 꼭 허공 한가지더라 말하여. 여기서 공기에서 비료가 나오고 태평양 바다에서, 여기 영도 앞바다에서 파도를 생기기듯이 옳지 여기서 상대성 나타났구나. 상대성은 변하는 도리로구나. 절대성은 변치 않는 도리로구나. 생사 이것도 상대성이다. 선악도 상대성. 정도니 사도니 상대성. 성인이니 범부니 상대성. 부처니 중생이니 상대성이거든. 전부 절대성자리 의젓하게 있으면서 상대성능이를 하기 때문에 말이지 아이고 나는 중생이로구나... 하지만 인제는 여러분들이 알았던 말이지. 알았으면은 요 말 그대로 받아들이. 또 받아들여서 이해가 안 되면 집어서 생각해 보시란 말이지. 해보는데 과학적으로 해보시란 말이지. 좋다 말이지. 견문각지 동원시켜도 좋다. 공부하는데 견문각지는 크게 금물인데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견문각지 동원해서 딱 하게 맞으면 이렇구나 하고 자신 딱 가져야 됩니다. 솔직한 말로 말이지 이 자신 안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말이지 누리의 진리 알지 안 했어요? 누리의 진리 알았다면은 부모미생전의 면목,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기 전 소식 알지 않았어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도 절대성, 지금도 절대성, 나중에 출구명이나 불구명이에 집어넣은 후에 도 절대성자리 그대로 뚜렷하게 있던 말이지. 이걸 알아버리면은 그것이 그만 견성이지 뭐예요? 견성하기 쉬워요. 옳은 스승 만나면 견성하기 쉬워요. 그러나 옳은 스승을 못 만나면 천 년 했잖아 이거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딴 방향으로 자꾸 가는데 나을 택이 있나요? 상대성 속에서 구해져야지? 상대성 속에서는 억년 해도 공부가 안 돼. 우리는 상대성을 견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가는 이 소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상대성 속에서만... 어떻게 그거 알 거냐 말이지. 그러나 여러분들은 알거든. 여러분들은 상대성을 견어잡고 절대성으로 돌아가는 이 소식을 알았다 말이지. 그 소식 알아보니 별거 아니더라 말이지. 간주려

서 요새 신식말로 하면 그 바로 절대성이 더란 말이지. 이거 여러분들이 알았어요? 그거 알면 그 이상 여러분들이 무엇 할러 하느냐 말이지. 그 이상 더 알려 하면 절대성자리 한 점 구정물을 퍼붓는 거나 한 가지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제일 첫째 견성부터 해 놓으면 망념도 없어지고 진경이니 뭐이니 전부 우리가 손바닥 위에다 올려놓고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더라도 전부 공성이란 걸 알게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부처님이라든지 이전 선사들의 말을 거꾸로 확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뒤집었다 해봤든 부처님의 뜻을 조금도 어긴 것이 없어. 그말이 그말이고 그말이 그말이지 어진 것이 없단 말이지. 그러하니 이 중에서 벌써 온갖 법이 벌어져. 굉장한 법이 벌어져.

어허 이러한 조화가 없었들들 불보살



견성 해놓으면 망념 없어지고
전부 공성이라는 걸 알게 돼
최소의 헛바닥 법신에
들어 앉아 설법

진리 내 몸 안에 있음은 알면
부처님의 은혜 값은 길 나온다



남네는 어디에다 발을 붙이시지? 허허! 머리없는 최소의 헛바닥이 설법을 하네. 소는 머리가 있지 안 해요? 머리가 없는데 쇠로 만든 소의 헛바닥이 설법을 한 다 말이지. 도대체 이게 비과학적인 말이라. 그러나 이것이 몸뚱이, 가죽주머니에 들어있으면 비과학적인 말인데, 법신에 들어있으면 왜 이것이 어찌 비과학적인 말이나 말이지. 아래저녁에 들장승도 된다 이런 말 했잖아요? 들장승도 된다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러하니 자 머리없는 최소는 뭐예요? 머리없는 최소의 헛바닥을 여러분들이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깜빡 잊어버렸어. 그런데 왜 최소냐 말이지. 이 건 무슨 이유로 이런 말을 했느냐 한 번 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다이아몬드보다도 금보다도 은보다도 더 질긴 쇠라.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하면

아하 최소라고 표현한 것은 이리러리한 의미가 아닌가요?

옳지 머리가 없는 최소라고 하니까 옳지 이거 아닌가 하고 여러분들이 알게 되요. 내가 여기서 더 이상 말해주면 안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좋아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거를 깨내어서 답을 내한테 해주셔야 되고. 그래야 이것이 여러분의 재산이 돼. 또 그리고 물론 이걸 내가 쓴 거지만은 설명을 한다고 해도 설명이 안 됩니다.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할 거요? 만약 내가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있다면 이 말은 금강경 강승에서 빼버려야 됩니다. 이거 설명 못 합니다.

그러하니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색신인 여러분에 들어앉지 않고 허공인 여러분이다 이래 생각을 하면은 이 답이 곧 풀려 버려. 아 그렇구나. 최소보다도 더한 그렇구나. 또 소는 어떻게... 소의 성품은 어떻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기도 또 이거 하나 첨가해도 좋아요. 안다면 망심이고 모른다면은 무기고 이리러니 이렇게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똑똑하다 지혜가 있다 하면 무엇이 지? 망심 아니예요? 나는 다 알았다 말이지. 망심 아니예요? 또 아무것도 몰라 하면 뚱뚱이나 뚱뚱이나 한 가지 아니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담장 어떤 것은 안 온다 할지라도 이 금강경을 들어나가면 아하 머리 없는 최소, 그거 서푼어치도 안 되네 이렇게 나를 잡니다.

솔직한 말로 이전 어른들의 화두니 무엇이니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화두죠? 물론 내가 만든 화두라고 이래 하고 있지만 말이지. 알고 보면 서푼어치 안 됩니다. 왜 그러냐. 무엇을 뜻하느냐. 진리가 한 자 밖에 있지 않아. 한 자 안에 있지 진리가. 다시 말하자면 내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몸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자라는 것도 말마디를 빌어서 하는 말이지. 이걸 알아야 그 때는 부처님의 은혜를 값은 길 이 여기서 나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이 방편설법으로서 약 오십 년 동안 하셨는데 전부 방편 설법이지가거든요. 이거 방편이 아니면 설법이 안 돼. 왜 그러냐. 이 당차기 무유 정법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지. 딱 정해진 법이 있으면 이건 이렇다 이건 이렇다 하면 그대로 돼. 아니거든. 그것이 아니거든.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연회 · 보림선원

믿음은 일체 모든 행동의 바탕

⑩-3보개회향

믿음은 이렇듯 아주 중요한 것이므로 신은 모든 부처가 돌아가는 바며 일체의 모든 행동이 비롯하는 바탕이라고 하여 신은 근본이라고 일컫는다. 이 믿음, 신심(信心)을 설명할진대 대략 네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근본을 믿는 일인데, 근본은 진리이며, 이 신근본(信根本)이란 진리를 사랑하고 이에 귀의하여 늘 생각하고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진리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과, 이것이 모든 부처의 돌아갈 바이며 갖가지 행동의 근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믿는다.

둘째는 부처를 믿는다. 부처를 믿으면 무량한 공덕이 있다. 우리가 왜 부처를 믿느냐 하면 그는 선근(善根)을 일으키는 원 토대며 또 일체의 모든 지(智)를 찾아 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앞의 진리를 믿는, 그러니까 옳은 것은 모두 옳다고 하는데서 그 중에 특히 부처를 믿는다는 것은 선택행위이다.

셋째는 법(法)을 즉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다. 앞의 것은 불보(佛寶)이고, 이 법보(法寶)를 믿으면 큰 이익이 있으며 육바라밀(六波羅蜜)을 수행하여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승(僧)을 믿으면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으며 자신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신승능정수행(信僧能正修行)이다. 승이란 부처님의 말씀을 받들어 수행하는 사회단체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믿음을 네 가지로 나누었는데 그렇다면 이 신심(信心), 보시로서 들어가는 문이다. 누가 와서 구하는 것이 있으면 그의 사정을 이해하여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하여 그의 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베풀어 준다. 기쁜 마음으로 간담 없이 보시해야 한다. 또 어떤 사람이 역난을 당하여 공포에 떨고 있을 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나처럼 지경에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보시다. 남에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또는 몸소 실천하는 행동으로써 큰 힘을 주되 조금도 겁을 내거나 아까지 말고 베풀어야 한다. 그 밖에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내게 진리와 지식, 또는 좋은 말씀을 들려 달라고 할 때 자신이 아는 대로 일러 주는 것이며 그것도 방편(方便)을 써서 간서를 따라 정도에 맞추어 알아듣도록 간곡히 말해 주어야 한다. 보시(布施)는 흔히 우리

가 시책말로 자선사업(慈善事業)이라고 일컫는 것과 같은 것이지만 이것이 위선(僞善)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일이며, 무엇보다도 자기가 베풀때 대하여서는 미련스런 애착은 아예 갖지 말고 상대방이 아마 고마워하고 있으려니 하는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는 계문(戒門), 계로서 들어가는 문이다. 이른바 죽이지 말고, 도둑질 하지 않고, 음란치 않고, 양설(兩舌)을 하거나 거짓말 않고, 악구와 망령된 소리 하지 않고 비단결처럼 발라 맞추거나 하지 말고, 탐(貪)과 치(嫉)를 멀리 하고, 남을 기만하거나 침묵하거나 성을 내거나 삿되거나, 삿된 견해를 가지거나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것이다. 또 출가(出家)한 사람은 번뇌를 끊어버려야 하며 미리 시문(市門)의 시끄러운 데서 떠나, 항상 정적(靜寂)한 곳에서 스스로의 수행을 한다. 자

는 그런 것도 안 해야 되고, 이렇듯 우리

는 참아 나가는 것인데 이는 오로지 부처님께 봉공하는 뜻으로 참는 것이지, 아까고, 참고,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써 내가 남에게 칭찬을 받는다는, 명예를 얻는 다든지 하는 그런 데다 목표를 둔다는 일은 삼가야 되는 것이다.

넷째에는 진문(進門)이다. 정진하고 나아가는 문이다.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하는 데는 게으름을 피워서는 안 되고, 성스러운 뜻이 있어야 하고, 비겁한 생각을 떠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마음과 몸이 큰 고통을 느끼며 살고 있지만 만일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는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본다. 우리가 써서 정진하고 얼마간 비축을 해 놓으면 우선 경제적으로 별 궁색이 없는데 만일 비축하는 그런 정진성이 없으면 단박에 물질로 크게 궁핍해질 것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부지런히 공덕을 닦고, 자신의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 이익이 되고 동시에 남을 이익하게 하는 사람이 되도록 크게 노력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중생을 저 고해(苦海)로부터 건져내야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모자라는 점이 있다. 물질적으로 정진을 게을리 하면 가난뱅이가 되고 정신적으로 학問 같은 것을 부실히 하여 정진이 모자란다면 낙후되어서 늘 남의 뒤 쫓기만 따라다니게 된다. 이리다간 한번 남을 가르쳐 보진 못하고 늘 상 배우다가 불 일 다 본다. 그러므로 진문(進門)을 깊이 헤아리고, 이 문을 늘 두드려 노력을 함으로써 우리가 남에게 뒤떨어지지 않고 나아가 지도할 수 있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를 이겨 나갈 수 있다. 장애의 극복, 이것이야말로 육시(六時)의 행원(行願)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경(禮敬)하고, 성심으로 참회(懺悔)하소, 근정(近靜), 수순(隨順)하고, 회향(廻向)해야 된다. 그리하여 모든 장애(障礙)를 물리쳐 자꾸만 선근(善根)이 증장되어 나간다.

셋째는 인문(忍門). 참는 길. 문은 길. 참는 길이란 어떤 것일까? 모든 것을 우리는 참아내야 한다. 먹고 싶고, 하고 싶고, 입고 싶고, 자고 싶고, 이래 가지고는 남에게 땀땀이 무슨 할 말이 있을 턱이 없다. 좀 배고픈 것도 참을 수 있어야 되고, 자고 싶은 것도 덜 자서 참고, 입고 싶은 것도 남을 위해 자기는 입지 말고 참아야 되고, 하고 싶어 이리 저리 허둥대



근본 · 부처 · 법 · 승
네가지 믿는 신심은
보시로 들어가는 문
기쁜 마음으로 나누고
베풀고 난 후에는
미련 없이 애착 버려야 한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 · 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계)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구독문의

-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행하는 힘
-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

대구불교의식 범음·범패·교육원 학인모집



- ◆ 열불경력 50년 대구팔공산 소리 최종보유자 동현스님!
- ◆ 사모곡, 회심곡, 백발가, 참회곡, 부모은중경(음반취입 632호) 제2기 교육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수시모집)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교육대상 : 비구, 비구니스님, 또는 사찰에 항시 상주하시는 스님이 계시지 않아 사찰운영에 어려움이 많으신분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지도해드리겠습니다.
- ◆ 초급반 : 교육과정 - 초발심자경문, 천수경, 반야심경, 도량서, 종성, 조석예불, 행선죽원, 사시마지불공, 관음시지
초급(일반)수업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12시까지
초급(속성)수업 :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교육기간 - 초급일반 : 10개월 / 초급속성 : 5개월
- ◆ 중급반 : 교육과정 - 시련, 대령관육, 시왕불공, 사시편, 봉승편, 상가염불, 불상점안, 전점안, 안택고사, 방생편
중급(일반)수업 :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까지
중급(속성)수업 :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 5시까지
교육기간 : 중급일반 : 15개월 / 중급속성 : 10개월
- ◆ 작법 (3개월) :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 5시까지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회의제바라. (오공양작법)
- ◆ 자세한 문의사항은 교육원에 직접나오셔서 상담해주시길 바랍니다.
- ◆ 교육원 주소 :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 2동 871-1번지
TEL 053)781-4200 / 팩스 053)851-2666 / H·P 010-2547-4200

원장 동현 합장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듯이 옮기고 영산화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9:00
- 수강대상 : (1)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육천법음대 졸업, 중앙승가장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